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통일을 불러

태권도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한 애국지사 (7)

오는 8월 4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신 25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온 세계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자주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통일사상과 로선,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고귀한 업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민족의 최대속원인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준 불멸의 조국통일총서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90년대에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에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었다.

온 세계가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심으로 홀모하여 마치 없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열다 앞두고 천만뜻밖에도 우리 길을 떠나신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만회할수 없는 최대의 상실이고 아픔이었다.

그러나 당시 내외반동일세력은 초보적인 인물도더마져다 켈버리고 민족대국상을 당하여 피눈물속에 몸부림치고있는 우리 인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댔을뿐 아니라 그 무는 《북괴설》까지 공공연히 떠들어대며 사면팔방에서 반공화국압살의 광풍을 몰아왔다.

이 준엄한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하더라도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여 조국과 민족안에 지닌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과 철석의 의지를 안고시고 주체86(1997)년 8월 4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종합체계화하시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시으로써 우리 겨레에게 통일운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구현해야 할 위력한 투쟁강령을 안겨주시였다.

또한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로작에는 민족자주원칙을 견지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문제, 민족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고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방법으로, 련방제방식으로 실현할데 대한 문제 그리고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으로써 온 겨레는 뚜렷한 목표와 방향,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조국통일로작은 내용의 심오성과 과학성, 그 실현방도의 합리성과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전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로작을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크나큰 용기를 새롭게 얻어주는 예국애국의 책봉》, 《조국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통일대강》으로 지지환영하면서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확고한 의지를 안고시고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에 헌명하게 령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경모심을 금치 못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신문, 통신, 방송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로작을 대서특필하였



태권도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한 애국지사 (7)

으며 정제, 사회계의 저명한 인사들은 지지담화를 발표하는 등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해나섰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계승하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성취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며 온 겨레가 거족적인 통일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수 있게 하는 불멸의 고부작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력사적인 로작을 발표하시어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력있게 전개해나갈수 있는 조석을 마련해주시고 기조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일관하게 틀어쥐시고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헌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 87(1998)년 4월 18일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 50불기반 중앙연구토론회에서 서한 《은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보내주시는것을 비롯하여 조국통일의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며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통일애국적의지와 대담단에 의하여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우리민족끼리님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되게 된것은 새 세기 자주통일의 력사적정표를 마련하고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이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으며 온 겨레가 어버이수령님의 필생의 뜻이었고 민족의 사활적요구인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해 총애전하도록 전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헌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통일위업은 민족자주의 계도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해올수 있었으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은 반동일세력을 압도하며 끊임없이 장성강화될수 있었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드림없이 계승 발전시키시어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주시고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자주통일성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조국통일유훈을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민족사적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조선민족의 로선과 방침을 천명하시이고 그 실천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는것은 온 겨레에게 자주통일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안겨준 특기할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무비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전략술로 내외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세계정치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으로써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민족번영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수 있는 역사의 담보를 더욱 굳건히 마련하여주시였다.

이제는 겨레는 민족의 태양이신 만고철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하신 영상에서 통일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보고있으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겨주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신 일 국

2002년 1월, 뜻밖에도 최홍희선생은 캐나다에서 불치의 병(위암)진단을 받게 되었다.

—조국으로 가야 한다. 치료를 받아도 조국에서 받고 수술을 해도 조국에서 하고 죽어도 조국땅에 묻혀야 한다.—

선생은 자기의 이러한 뜻을 조국에 알리웠다.

최홍희선생의 건강상태와 그의 결심에 대해 보고받은 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최홍희총재를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그를 하루속히 조국에 데려와서 유능한 치료진으로 병치료를 하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최홍희선생의 생명을 연장할수 있는 최선의 구급대책도 강구할것을 해당 일군들에게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에 대한 치료정형을 매일같이 알아보시고 산상을 비롯하여 병치료에 필요한 약과 많은 과일로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최홍희선생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태권도고단자들의 강습에 참가하러 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갈 때에는 우리의 의사와 해당 일군의 방조를 받도록 하라고 치료방조조치도 취해주시였다.

태권도강습을 마친 후 선생은 곧 캐나다에 있는 집으로 떠났다.

집에 도착하여 태권도와 관련한 문건들과 자료들 그리고 자기의 사물들을 깨끗이 정리한 선생은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조국이 없었다면 캐나다에 묻힐텐데... 우리에게 조국이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나는 고마운 내 조국에 가서 묻히고싶다. ...》

최홍희선생이 조국에 오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생이 캐나다에서 조국까지 오겠 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겠을 넘겨하시어 해당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최홍희선생이 조국에 도착한 후 선생에 대한 치료보고가 접수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선생의 병세는 날로 더욱 악화되었다.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한 최홍희선생은 국제태권도련맹의 핵심성원들을 조국으로, 자신의 곁으로 불렀다.

선생은 마지막흔신의 힘을 가다듬어 태권도는 조선이 없으면 절대로 안된다. 그 모국인 조선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 북남태권도를 꼭 통합하여 조국통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마지막부탁을 남겼다.

그날은 2002년 6월 15일이였다.

최홍희선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에 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애석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수 없으시어 친히 화환을 그의 령전에 보내시였다.

그러시고는 해당 일군들에게 최홍희총재는 우리 수령님께 태권도를 가지고 조국통일에 이바지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고 수십년동안 해외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태권도활동을 열정적으로 해오다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것을 알고는 조국의 품에 안겨 생을 마쳤다고, 최홍희총재는 결국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셈이라고, 가까운 사람인데 사망하였다고, 최홍희총재의 유해를 애국렬사장에 안치하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최홍희총재는 죽어서 조국의 품, 우리 당의 품에 안겨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최홍희총재의 유품들을 태권도전당에 잘 전시해놓

으면 될것이라고, 최홍희총재는 간단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최홍희선생의 80평생을 더욱 빛내어주고싶으신 뜨거운 마음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부고를 내보내고 선생의 장례식을 잘하며 가족들을 잘 돌보아줄데 대하여 세심히 이르시였다.

최홍희선생과 영결하는 부고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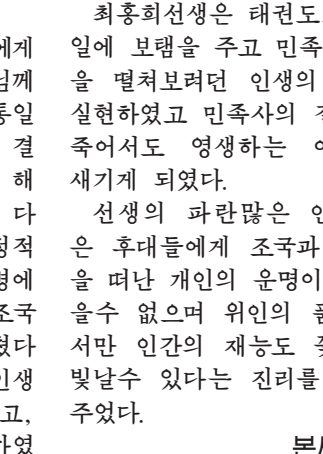
《최홍희선생은 오래동안 남조선과 해외에서 목결같은 길을 걸어오다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품에 안겨 비로소 애국의 길을 찾고 태권도로 나라의 통일위업에 이바지해온 애국지사이며 이롭고 있는 활동가이다. ...》

애국지사, 이롭고 있는 활동가!

최홍희선생은 태권도로 통일에 보탬을 주고 민족의 넋을 떨쳐보려던 인생의 꿈도 실현하였고 민족사의 고통에 죽어서도 영생하는 이름을 새기게 되었다.

선생의 파란많은 인생길은 선대들에게 조국과 민족을 떠난 개인의 운명이란 있을수 없으며 위인의 품속에서만 인간의 재능도 꽃피고 빛날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 주었다.

본사기자



최홍희선생의 묘지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공화국을 겨냥한 북침전쟁연습소동에 더욱 광란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얼마전 미국립훈연센터에서 미 특수전부대와 함께 《합수작전》 훈련을 벌인 남조선군사장관들은 련이어 경기도 오산공군기지에서 《한》미화합공대용훈련에 광분하였다. 이러한 속내 다음달에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인 《울지 프리덤 실드》를 강행하려 하고있다.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의 이러한 전쟁불장난이 말로 공화국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 아닐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은 변함없는 대조선적대정책, 동족대결정책의 직접적발표이다.

세기와 년대를 넘어 조선반도에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있다.

《공산주의의 위협》을 운운하며 청소년 우리 공화국을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은 트루먼행정부로부터 현 미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지 끈질기게 이어져온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의 기본목표는 레외없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정권전복》이었다.

이에 따라 작성된것이 5단계로 수립된 《5027》북침전쟁계획이였고 《외과수술식타격》을 기본으로 한 《5029》작전계획이였으며 《북극변사태》발생을 노린 《5030》전쟁계획이였다.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위험천만한 망동

최근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은 《장기, 단기 대북군사대비례조정》에 대해 떠들며 새로운 북침작전계획을 작성하려 하고있다.

이러한 북침기도와 북침전쟁계획에 따라 해마다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들이 강도높게 감행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벌리는 모든 전쟁불장난과 마찬가지로 오는 8월에 강행하려는 《울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 역시

새로운 북침작전계획에 따라 감행되는 북침전쟁연회이다.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은 력대 어느 보수 《정권》도 통가하는 극악무도한 동족대결정책과 사대매국행위에 매달려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정경으로 끌어가고있다.

역적패당은 공화국정권과 군대를 다시금 《주적》으로 규정해놓

고 《힘에 의한 평화》와 《힘에 의한 안보》를 꺼리낌없이 제창하면서 무기개발 및 방위산업강화책 등에 더욱 열을 올리고 미국의 핵전략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으며 여러가지 명목의 전쟁연습들을 확대해나가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의 북침전쟁책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분별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은 지난 시기 내내였던 《남색회론》, 《방어적회론》이라는 기만적인 간판마저 때리우고 모든 합동군사연습들이 공화국의 《지도부제거》와 《제도전복》을 목표로 하고있다는것을 꺼리낌없이 공개해내고있는데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군사연습들이 벌어지고있지만 특정국가의 지도부를 《제거》하고 제도를 《전복》하는것을 주요목표로 삼고 작전부대를 총동원하고있는것은 유독 미국과 남조선대결파들이 벌리는 북침합동군사연습뿐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은 위험천만한 전면핵전쟁도발행위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감행하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은 규모의 방대성과 훈련의 강도, 실행방식의 무모성과 포악성에 있어서 그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세계최대규모의 전면핵전쟁연습이다.

미국은 남조선호전파들과의 합동군사연습에 남조선강경 미군과 하와이에 있는 미태평양군사령부의 주요지휘자들을 비롯하여 조선반도유사시에 투입하게 되어있는 모든 무력들을 들이밀고있으며 지어 미본토와 유럽에 있는 주요통합군사령부들과 일본 그리고 나토부력까지 동원하고있다.

지금도 미국은 핵함공모 함타격단을 남조선수역에 두차례나 기동전개시켰으며 핵잠수함들, 《B-1B》, 《B-52》전략폭격기들과 《F-22》페이터, 《F-35》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배치해놓고 북침전쟁불장난을 벌리고있다.

최근 미국이 아무리나 주저와 꺼리낌도 없이 핵전쟁장비들을 투입한 사실과 그 타격력에 대해 배짱이 공개하고있는것은 대조선침략책동이 실행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공화국은 이미 어떤 세력이든 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것이라는데 대해 천명하였다.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절대적립, 불가항력을 지닌 공화국을 상대로 계속 무모한 군사적도전을 일삼는다면 최말은 력사가 어떻게 끝장나고 동족대결에 환장되어 된자들의 추악한 장면이 어떻게 종말을 고하는가를 제논으로 똑똑히 보면서 무덤으로 가게 될것이다.

박 호 남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감행하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은 규모의 방대성과 훈련의 강도, 실행방식의 무모성과 포악성에 있어서 그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세계최대규모의 전면핵전쟁연습이다.

미국은 남조선호전파들과의 합동군사연습에 남조선강경 미군과 하와이에 있는 미태평양군사령부의 주요지휘자들을 비롯하여 조선반도유사시에 투입하게 되어있는 모든 무력들을 들이밀고있으며 지어 미본토와 유럽에 있는 주요통합군사령부들과 일본 그리고 나토부력까지 동원하고있다.

지금도 미국은 핵함공모 함타격단을 남조선수역에 두차례나 기동전개시켰으며 핵잠수함들, 《B-1B》, 《B-52》전략폭격기들과 《F-22》페이터, 《F-35》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배치해놓고 북침전쟁불장난을 벌리고있다.

최근 미국이 아무리나 주저와 꺼리낌도 없이 핵전쟁장비들을 투입한 사실과 그 타격력에 대해 배짱이 공개하고있는것은 대조선침략책동이 실행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공화국은 이미 어떤 세력이든 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것이라는데 대해 천명하였다.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절대적립, 불가항력을 지닌 공화국을 상대로 계속 무모한 군사적도전을 일삼는다면 최말은 력사가 어떻게 끝장나고 동족대결에 환장되어 된자들의 추악한 장면이 어떻게 종말을 고하는가를 제논으로 똑똑히 보면서 무덤으로 가게 될것이다.

박 호 남

《반북대결반대, 평화를 위한 련대를》

—남조선에서 《8.15 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 결성, 행동계획발표—

보도에 의하면 6.15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비롯한 남조선의 9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월 14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해방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전세계적인 생명선의 도래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가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결정책, 《한》미일 협력에 반대하는 행동을 조직함으로써 여론을 환기하고 지속적 인 평화, 통일운동의 동력을 구축할 목적으로 8.15자주평화통일대회를 오는 8월 13일 오후 3시 남대문, 서울역근에서 개최하고 통산 《대통령집무실》까지 2.7km 구간을 행진하는 8.15자주평화통일대행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6.15남측위원회와 지역본부, 민화협, 겨레하나, 민주총총, 《한국로총》, 《한국진보련맹》을 비롯한 90여개 시민사회단체 약 1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남조선각지 70여곳과 세계 주요도시 30여곳에서 평화행동을 벌리고 해외의 각계 단체련맹으로 된 국제평화선언은 8월 10일 경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일변도의 《대북정책》,

남조선의 다른 각계층 단체들도 8.15자주평화통일대회에 련대하여 동시행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시민평화포럼》은 8월 14일 각지 주민들과 함께 적대과 전쟁을 멈추고 시민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자는 립진각평화행동을 개최하려 하고있다.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련맹도 오는 8월 14일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규탄하고 일본의 사회와 배상을 요구하는 나비문화제를 진행하며 이에 앞서 8월 10일에는 세계련대평화행위로 수요시위를 개최하려 하고있다.

일본에서는 6.15일본지역위원회와 일본의 각계층 시민단체들이 미국과 남조선의 대사관, 령사관앞에서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을 반대배격하는 항의행동을 진행하려 하고있다.

본사기자

보도에 의하면 6.15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비롯한 남조선의 9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월 14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해방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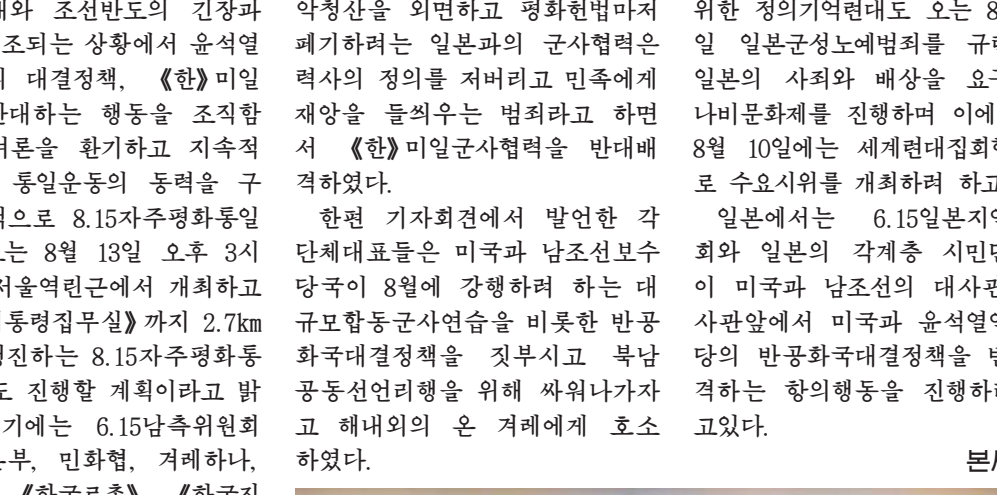
추진위원회는 전세계적인 생명선의 도래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가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결정책, 《한》미일 협력에 반대하는 행동을 조직함으로써 여론을 환기하고 지속적 인 평화, 통일운동의 동력을 구축할 목적으로 8.15자주평화통일대회를 오는 8월 13일 오후 3시 남대문, 서울역근에서 개최하고 통산 《대통령집무실》까지 2.7km 구간을 행진하는 8.15자주평화통일대행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6.15남측위원회와 지역본부, 민화협, 겨레하나, 민주총총, 《한국로총》, 《한국진보련맹》을 비롯한 90여개 시민사회단체 약 1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남조선각지 70여곳과 세계 주요도시 30여곳에서 평화행동을 벌리고 해외의 각계 단체련맹으로 된 국제평화선언은 8월 10일 경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일변도의 《대북정책》,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벌리는 모든 전쟁불장난과 마찬가지로 오는 8월에 강행하려는 《울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 역시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벌리는 모든 전쟁불장난과 마찬가지로 오는 8월에 강행하려는 《울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 역시